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청소년 인성, 뇌 안에 답이 있다

뉴스레터 제 2018-132호 | 발행일 2018. 7. 10(화)

Contents



- 뇌교육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다!
-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장, 대한불교천태종 청소년지도교사
인성교육 특강 인기



- 경북뇌교육협회, 형곡고 전교생 청소년 뇌활용 인성캠프 개최
- 대구뇌교육협회, 달서초 '꿈 스피치 진로특강' 개최
- 경기뇌교육협회, 영일초 '우리 함께 다 함께' 프로그램 개최
- 경기뇌교육협회, 산남초 또래관계소통 뇌교육 '자아 존중감 향상' 개최



- 서울뇌교육협회, 목운초 '뇌교육 파워브레인활동' 프로그램 개최
- 경남뇌교육협회, 함양금반초 전교생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 경북뇌교육협회, 호서남초 가족힐링캠프 개최



- 경기뇌교육협회, 비전중 가족힐링캠프 개최
- 자유학기제 청소년 두뇌코칭 과정 '리틀 브레인트레이너' 강사 양성

● 발행처 : (사)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www.youthinsung.org

● 발행인 : 김나옥

뇌교육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다!

전국뇌교육강사 워크숍 성료



지난 6월 17일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협회장 김나옥, 이하 청소년인성협회)와 브레인트레이너협회(협회장 전세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뇌교육강사 워크숍이 천안 국학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뇌교육강사 85명이 모인 가운데 학계와 교육현장 전문가들의 강연, 지역뇌교육협회 현장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어, 뇌교육강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인성협회 김나옥회장은 강연에서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뇌교육의 창시자인 일지 이승헌 총장(글로벌사이버대학교)이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강사들의 환호와 함께 시작했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시대, 뇌교육강사의 파워'를 주제로 강연해 인공지능 사회로 접어드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때 인간의 자연지

능을 살려주는 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뇌교육 강사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주도적 뇌가소성을 전파하는 사람"이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뇌를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뇌교육강사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그 밖에 뇌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참가자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뇌교육 강사들의 공감을 얻는 모습이었다.

한국뇌과학연구원 안승찬 연구실장은 '뇌교육 훈련 프로그램 연구 사례'를 주제로 뇌체조와 HSP-Gym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실험을 했던 연구 사례를 보여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으며, 참가자들과 함께 동작을 취해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시간을 가져 호응을 얻었다.

오후 시간에는 국제뇌교육협회 김지인 팀장이 국제뇌교육



협회를 소개하고 뇌교육이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루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주었다. 이후 한국뇌교육원 김다인 팀장은 ‘놀이와 함께 하는 뇌교육 수업 체험’ 시간으로 “둘이서 한 몸”, “커다란 꿀밤 나무 아래서”, “풍선물기”, “콩과 콩깍지”게임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이서 한 몸”게임은 두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한 몸처럼 박수를 치는데 서먹했던 강사들 사이가 게임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기도 했다. 신나게 웃고 뛰고 즐기는 가운데 강사들의 얼굴은 더욱 환해졌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뇌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로 서울뇌교육협회 손미화 사무처장이 7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경영고등학교의 “스트레스 없는 학교”와 경기뇌교육협회 강문정 사무처장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중학교 “또래관계소통-우리반 최고”를 발표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뇌교육의 효과를 학교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듯 매년 손미화 사무처장에게 강의 요청이 있다고 한다. 경기 뇌교육협회의 “또래관계소통-우리반 최고”프로그램을 받은 학교는 학급 분위기가 좋아지고 반 아이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반이 된다고 한다.

브레인트레이너협회 노윤정 연구원은 자유학기제 뇌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메타인지능력과 집중력을 향상하는 리틀 브레인트레이너 과정을 실습과 함께 진행했다. 노윤정 연구원이 제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중학교에서 4년 동안 진행을 해 오던 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 지도할 때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했으며 강사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신재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뇌활용 행복학교 활용방안’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와 교육 패러다임, 미래교육의 모델로 뇌활용 행복교육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여 “재 한국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아이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워 크고 가치 있는 꿈을 추구하며 행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뇌활용 행복 교육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인트레이너자격검정센터 노형철 사무국장은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를 활용한 뇌교육 무대 개척’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노 국장은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에 대한 소개와 실제로 브레인트레이너들이 활동했던 사례들을 보여주었으며 뇌교육 무대에서 더 넓게 활동할 것에 기대를 표했다. 브레인트레이너는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두뇌훈련 전문가이다. 노 국장은 “브레인트레이너의 활동이 다



양한데 특히 뇌파측정기기 스마트브레인을 활용하여 두뇌 활용능력을 측정하고 두뇌코칭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의 학교, 관공서, 기업체,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적용하여 사람들의 두뇌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나대한(47, 전북 전주시) 강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 혼자가 아닌 전국에서

강사들이 모여 서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고 했고, 정영주(46, 충북 영동군) 강사는 “뇌교육W강사 워크숍을 통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생생히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라고 참석 소감을 말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장,

대한불교천태종 청소년지도교사 인성교육 특강 인기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김나옥회장은 6월 2일과 23일 각각 서울시 구강사와 대구시 대성사에 청소년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강사로 초빙되었다.

대한불교천태종 교육담당 학산스님은 청소년 지도교사 연수 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강사를 알아보던 중 청소년인성협회의 홍익인간 철학을 보고 감명을 받아 강의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구강사와 대성사에서 100명의 지도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은 뇌체조와 브레인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지도교사들은 학생들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강사의 김미진 지도교사는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낮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교육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뇌교육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북교육협회

형곡고 전교생 청소년 뇌활용 인성캠프 개최



경북교육협회는 5월 5회차에 걸쳐 형곡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뇌활용 인성캠프를 개최했다.

인성캠프를 체험한 학생들은 “힘들거나 아픈 일이 있어도 오늘 느낀 걸 다시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나의 말이 상처가 되었

을 수도 있다는 것에 미안하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나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내 꿈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마음이 한층 더 편안해졌고 위로가 되었다. 마치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다. 앞으로 나를 포함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대구뇌교육협회, 달서초 '꿈 스피치 진로특강' 개최



대구뇌교육협회는 6월 15일 달서초등학교 6학년 138명을 대상으로 '꿈 스피치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직업과 꿈은 다른 것 같다. 직업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리고 배드민턴 놀이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싸웠지만 협동을 하니 잘 풀렸다. 수업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다.”, “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뇌운동이 재미있었고 명상을 했을 때도 재미있었다. 꿀잼! 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내 꿈에 관해 잠시나마라도 생각하고 직접 경험해보니 좋았다. 다음에도 또 한다면 이외에도 다른 것으



로 한번 해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서로 칭찬해주며 함께 협동할 것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느낀 소감을 이야기 했다.

경기뇌교육협회, 영일초 ‘우리 함께 다 함께’ 프로그램 개최



경기뇌교육협회는 6월 8일 수원시 영일초등학교 5학년 121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증진 ‘우리 함께 다 함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프로그램을 체험한 학생들은 “이번 시간은 내게 솔직해지고 마음이 편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친구들과 더욱 더 우정을 쌓아 보고 싶다. 전학을 와서 힘들 줄 알았는데 직접 다가

와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친구야 고마워!”, “뇌교육을 하면서 친구들과 한층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모두 웃고, 서로 칭찬하고, 사랑을 주니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진 것 같다. 나는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친구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고, 앞으로 친구들에게 잘 대해 주고 고민들도 많이 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들아 항상 웃자! 사랑해!”등의 이야기를 했다.

경기뇌교육협회, 산남초 또래관계소통 뇌교육 '자아 존중감 향상' 개최



경기뇌교육협회는 5월 3일 수원시 산남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에서 또래관계소통 뇌교육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나는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해 준 선생님이 감사했습니다. 친구를 칭찬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힘든 친구를 도와주고 먼저 사과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나의 주변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친구를 가리면 안 되고 나 먼저 칭찬해야겠다는 점, 사이 좋게 지내야겠다.”, “최고 스티커를 서로에게 붙여줘서 고맙고 좋았다.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좋았다. 다음엔 더 행복해지는 학생이 될 것이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조금 슬펐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느꼈다. 지구에 사는 사람 모두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받은 감동의 느낌을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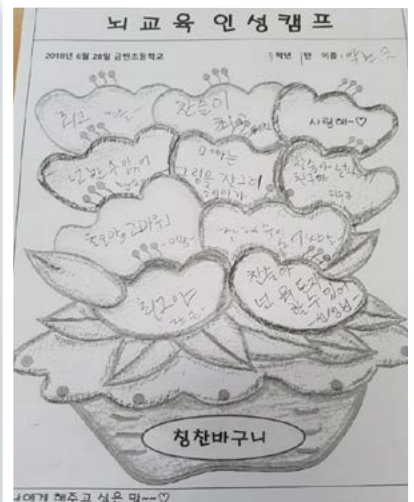
서울뇌교육협회, 목운초 '뇌교육 파워브레인활동' 프로그램 개최



서울뇌교육협회는 목운초등학교 3, 4학년 540여 명을 대상으로 '뇌교육 파워브레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10월 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다. 뇌교육 파워브레인활동은 뇌체

조, 참 좋은 이야기, HSP-Gym, 조별 활동 등을 통해 파워 있는 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파워브레인은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경남뇌교육협회, 함양금반초 전교생 뇌교육 인성캠프 개최



경남뇌교육협회는 6월 28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뇌교육 인성캠프를 개최했다.

경남뇌교육협회 이승희 사무처장은 “순수하고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캠프에 집중했습니다. ‘잘

하고 있다’, ‘멋지다’는 칭찬에 감동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니 함께 행복했고 더 많은 아이들이 뇌교육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북뇌교육협회, 호서남초 가족힐링캠프 개최



경북뇌교육협회는 5월 29일 문경시 호서남초등학교 3, 4학년 학생가족 80명을 대상으로 가족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캠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서만 마주보며 게임도 하고 웃고 움직이면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들에게 더 관심가지고 아이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소원했던 우리 딸과 모처럼 하나가 된 느낌이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유익한 힐링캠프였다. 수고하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다."

"잠시나마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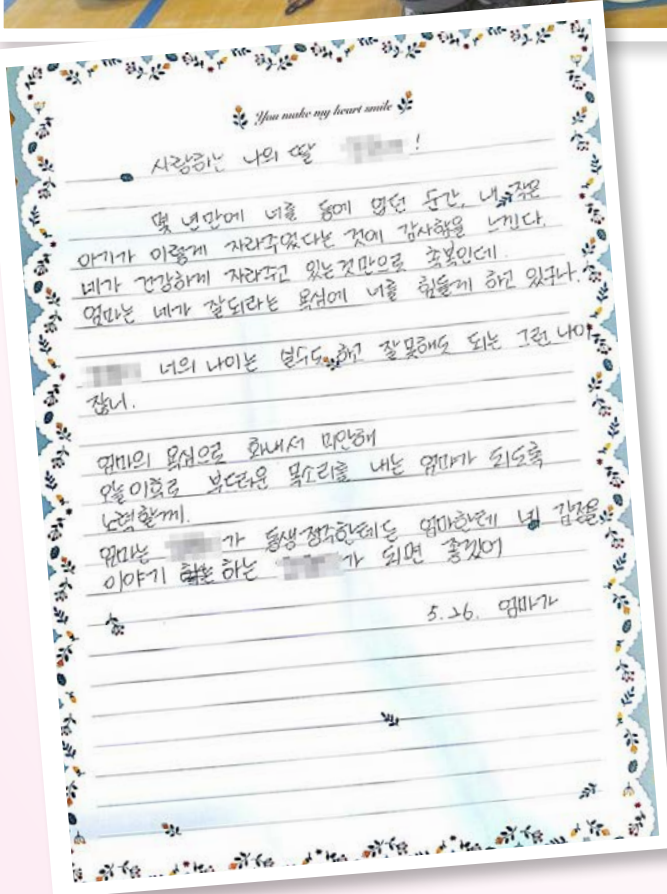


이름으로 요구사항만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더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그냥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만 힐링캠프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이제 우리가 뭘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소중한 우리 가족 사랑해요. 우리가 부모님과 내가 소중하다고 이제 느꼈어요.”, “가족이랑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배웠고, 뇌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 좋았던 것 같다.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뇌교육협회, 비전중 가족힐링캠프 개최



경기뇌교육협회는 5월 26일 평택시 비전중학교 학
부모와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가족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서 학부모들은 “가까이 있는 보물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네요.
1년 후에도 다시 참석해야겠어요. 즐거웠습니다.”, “가
족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느끼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로 인해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
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학생들은 “행복에 대해 알게 되었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간에 언제
나 행복해 질수 있다는 걸 느끼고 부모의 소중함을 크
게 느꼈다.”라고 느낀점을 말했다.

자유학기제 청소년 두뇌코칭 과정 ‘리틀 브레인트레이너’ 강사 양성

– 브레인트레이너협회, 1기 전문강사 23명 배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 활용의 시대 진입’을 선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수업에 뇌 활용 훈련을 위한 청소년 두뇌코칭 과정을 운영할 강사가 양성되었다.

브레인트레이너협회(협회장 전세일, 이하 협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충남 천안 국학원 3층 교육장에서 ‘리틀 브

레인트레이너’ 강사과정을 개최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가 후원한 이번 집중반 교육은 전국에서 청소년 뇌교육 경력 3년 이상의 베테랑 강사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의 주강사인 브레인트레이너협회 노윤정 연구원은 “전 과정은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의 전용 콘텐츠로, 공교육 현장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박2일간 ‘리틀 브레인트레이너’과정을 직접 체



협하고 지도법의 핵심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두뇌코칭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교육 취지를 밝혔다. 1박 2일간 진행된 집중반 강사과정은 뇌 구조와 청소년기의 뇌의 이해, 집중력 향상을 위한 시각주의력 훈련과 청각주의력 훈련, 정서조절 훈련,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워킹 메모리(작업기억) 및 브레인스크린 활용, 협업 및 집단지성 훈련, 두뇌활용능력 점검에 이어 수료식으로 진행되었다.

노윤정 연구원은 각 과정마다 청소년에게 전할 핵심주제를 짚어주며, 청소년을 이해하는 법, 뇌과학적 체험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뇌활용에 관한 다양

한 훈련 중 하나로 워킹 메모리(작업기억)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바라보거나, 브레인스크린을 통해 자신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객관화함으로써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정서조절훈련은 첫날, 배꼽힐링을 통해 뇌파를 안정시키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참가자들이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서로 뭉친 근육과 불편한 몸을 힐링하는 파트너 힐링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며 힐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과정은 협업 및 집단지성 훈련이었다.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마음을 모아 과제를 해결하는 게임형태로 진행되었다. 노 연구원은 “뇌세포는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독으로 있으면 소멸한다. 뇌세포가 시냅스로 연결되어 쓰여야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활용 훈련의 목적은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더불어 이롭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이 과정은 뇌를 활용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날, 현재 천안 봉서중학교에서 리틀브레인트레이너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는 성영희 강사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한 체험담과 함께 이 과정의 전망에 관한 의견을 밝혀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 브레인트레이닝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지막 과정으로 두 뇌활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 연구원은 “두뇌능력점검은 90분 씩 16차시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과정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청소년들은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변화를 내가 만들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자존감과 자기효능

감이 높아진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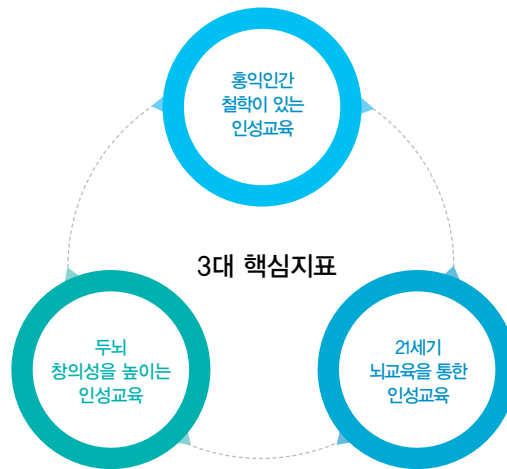
과정을 마친 후 수료식에서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김나옥 회장은 “그동안 뇌교육 현장에서 많은 강사들이 노력하여 축적된 콘텐츠와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과정이 접목되어 ‘리틀 브레인트레이너’로 개발되었다. 브레인트레이너로서 자기계발과 대한민국의 두뇌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설문문을 통해 “새로운 지도방식이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뇌교육을 지도했는데 새삼 뇌활용교육의 가치와 효과에 확신을 갖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브레인트레이너협회는 오는 7월 14일과 15일 정규반 1기 과정을 진행한다. 정규반 과정은 청소년 대상 교육을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강사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선착순 30명까지 지원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브레인트레이너협회(www.brain-tr.org)로 확인하면 된다.

[출처: 코리아스피릿(www.ikoreanspirit.com)]

● 설립목적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는
21세기 뇌과학에 기반한 신체, 정서, 인지학습관 통합적 교육을 추구합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는
미래교육대안 뇌교육을 통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추구합니다.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인 **흥익인간 철학**을 핵심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 중점추진사업

체험형 인성교육 보급

○ 학교 변화

- 행복한 뇌교육 학교 만들기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 학부모 변화

- 학부모 뇌교육 연수, 가족캠프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 학생 변화

- 방과 후 학교
- 재량학교
- 대안교실
- 두뇌코칭
- 뇌교육 특강
- 뇌교육 인성, 진로 캠프 등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 교사 변화

- 교사 뇌교육 연수, 힐링캠프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Youth Mental Health Character Education Association